

# 文 ‘이-박 퇴진’ 해법 고심속 安과 전격 회담

## 민주 인적쇄신 둘러싼 당내갈등 고비

# 박근혜 “北 지도자 만나겠다”

남북교류 활성화 위해 서울·평양에 ‘협력사무소’ 설치

### 새정치위 안경환 위원장도 고강도 쇄신 시사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이-박’(이해찬-박지원) 퇴진론에 대한 해법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5일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회담 약속이 이뤄지면서 인적 쇄신 문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특히 당 쇄신을 주도할 민주당 대선캠프의 ‘새로운정치위원회(새정치위)’ 안경환 위원장이 5일 취임하면서 강력한 쇄신지를 밝혀 향후 ‘쇄신정국’의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내에서는 문 후보가 ‘이-박’ 퇴진론으로 대변되는 인적쇄신 요구를 어느 정도 수렴하면서도 내부 갈등이나 상처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수습책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 후보는 지난 2일 이해찬 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가진데 이어 이날 오후 비주류 그룹과 일부 중진 등 다양한 당내 인사들과 접촉, 의견을 수렴했다.

문 후보는 이날 새로운 정치위원회 안경환 위원장의 취임에 맞춰 “새로운 정치 비전을 제시하는 것뿐 아니라 민주당이 먼저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필요하다. 안 후보 측도 공감하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각본은 언급을 피했다.

선대위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용퇴’하고 박지원 원내대표가 호남으로 ‘하방’하는 선에서 절충점이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문 후보 성격상 이 대표를 마냥 압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도 폐밀리듯 물러나는 것에는 불쾌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 전체 회의에서 “지난 총선에서 다수당이 될 기회를 잃은 것은 민주당의 뼈아픈 실패로, 구태의연한 정치작태와 분열로 절호의 기회를 잃고 입법부를 내줬다”고 직격탄을 날려 고강도 쇄신을 예고했다. 그는 또 “정당의 보호 밖에 있는 후보에게 무게가 실리고 있음에도, 기존 정당정치 속으로 들어오라고만 주문하는 오만함은 불식해야 한다”며 “맞서야 할 거대한 골리앗 새누리당 후보는 일사불란하게 국민 마음으로 다가서는 민주당은 사본오열, 지리멸렬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 그는 나아가 “행여 당의 후보가 어떻게

되든 수수방관하며 자신의 입지만 생각하면서 정치적 계산을 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와 박 원내대표가 언젠가 결단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비주류 그룹은 이날 문 후보와 면담에서 이 대표와 박 원내대표의 사퇴요구를 비롯한 당 쇄신안을 문후보에게 전달했으며 원외인사 45명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 공천 및 대선 경선 과정 책임을 물어 이 대표와 박 원내대표의 퇴진을 요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5일 남북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과 평양에 각각 ‘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고 북한 지도자와도 만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외교·안보·통일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회견문을 통해 ‘지속가능한 평화’와 ‘신뢰받는 외교’, ‘행복한 통일’을 외교·안보 정책의 3대 기조로 설정하고 7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 외교안보 정책의 후순위를 방지하기 위해 콘트롤타워인 가칭 ‘국가안보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정부 들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약화됐다고 하는데 안보 위기에서 관련 부처 간 입장차가 노출되지 않았느냐”며 “일관되고 효율성 있는 위기관리를 위해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북핵 문제의 경우 ‘한·미·중 3자 전략대화’ 등 다각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일종의 ‘남북대표부’ 역할을 하는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서울과 평양에 각각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특히 “신뢰를 쌓으려면 다양한 대화채널이 열려 있어야 한다”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면 북한의 지도자와도 만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과와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윤병세 외교통일추진단장은 “박 후보는 이벤트를 위한 정상회담에는 관심이 없고 시간과 장소는 가리지 않고 포맷에도 구애받지 않고 (김정은 제1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5일 서울 중구 연지동 한국기독교총연합회(CCK)를 방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홍재철 목사의 인사를 받아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전남 국비 확보 동분서주 새누리 주영순 의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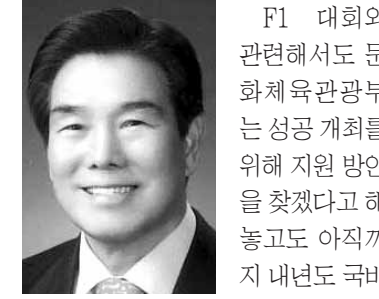
새천년대교·F1 지원 등 예결위 정책질의 맹활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이 내년도 예산안 관련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전남지역 국비 확보를 위해 맹활약을 펼쳐 주목받고 있다.

주 의원은 지난 1일과 2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신안 앞바다~암태도를 잇는 ‘새천년대교’ 건설, F1 대회 국비 지원, 목포항 재해안전망 구축 실시설계비 등 전남의 현안 사업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호남은 여전히 소외지역”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새천년대교 건설 사업은 국토해양부의 자체 예산 삭감으로 당초 계획보다 7년이나 늦은 2025년 예산에 마무리될 전망”이라며 “국토부장관은 사업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질타했다.

2018년까지 5205억원이 들어갈 이 사업은 현재까지 1016억원이 투입돼 내년부턴 매년 700억원 이상 필요한데 국토부는 472억원만 신청했고, 기재부는 국토부 요구액의 65%인 310억원 편성했다는 것이다.



F1 대회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성공 개최를 위해 지원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해 놓고도 아직까지 내년도 국비 지원액을 배정하지 않았다. 주 의원은 지난 2년간 F1 대회 개최로 전남도의 운영적자는 1335억원을 기록했으며 정부지원 없이 내년 대회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F1 경주장을 활용해 자동차부품의 극한성능 시험 등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 자동차 부품기업 육성과 완성차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며 대안도 제시했다. /목포=고구석기자 yousoo@

## 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투표시간 연장’ 개정안

## 이번 정기국회내 통과 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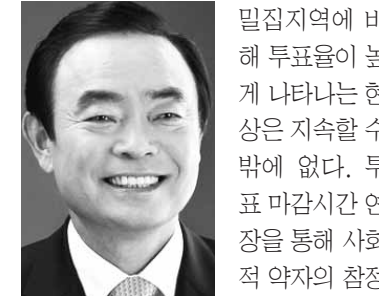
투표시간 연장이 이번 대선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심사 중이어서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장 의원은 지난 9월 5일 해당 상임위에 제출한 이 개정안은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 3시간 연장하는 것과 대학 내 재자 투

표소 설치 기준을 2000명에서 500명으로 줄이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말 대선부터 적용돼 투표 마감시간이 3시간 연장된 것은 물론 다음 총선·지방선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장 의원은 “비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 노동시장 구조조사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 침해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부천지역이 서민



밀집지역에 비해 투표율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지속할 수밖에 없다. 투표 마감시간 연장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장 의원은 특히 “우리나라 투표 마감시간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다. 대부분 국가가 밤 8시~10시까지 투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다시 광주 찾는 문, 왜?

제주행 체재놓고 8~9일 영화제·조선대 콘서트 참석 안 후보와 단일화 앞두고 호남 지지율 상승세 굳히기

이 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안 후보가 4~5일 전북, 광주, 전남 등을 잇달아 방문, 호남 민심에 지지를 호소할 점도 문 후보가

서둘러 광주를 찾는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문 후보는 지난달 28일 전북 전주와 광주지역 선대위 출범식과 지난 4일 전북 익산 원불교 행사에 참

석한 데 이어 나올 만에 또 광주를 찾는 등 매우 한 번 꼴로 호남을 방문하고 있다.

문 후보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문 후보의 지지율 상승 추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광주 방문은 호남 민심의 결집에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문 후보는 이번 광주 방문을 통해 후보 단일화를 통한 정권 창출의 비전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오는 8일 저녁 부인 김정숙씨와 함께 광주 국제영화제에 참석하는데 이어 9일에는 조선대에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문 후보는 8일 제주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하고 다음 날 민생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었지만 급히 일정을 변경, 광주 방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를 앞두고 광주 방문을 통해 호남에서의 지지율 상승 추세를 확고

**신용카드 한도 구매**  
사용한도만큼 현금으로!

**상품권 매입**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법인개인 출장가능!**

현금필요하신분  
**3분이내 즉시해결!**

H. 010-2082-6353  
TEL. 062)383-6364

**철학연구소원**

**수강연수 강의료 무료!**  
**현재 무속인 역술철학 운영자 환영!**

**수강종목**  
사주명리 기초부터 완결까지 6개월  
자미두수 천문별법의 굴절과 인간의 운명, 노력의 결실과 숙명의 한계성 강의, 경천동지할 비술의 세계, 기초에서 완결까지 6개월  
풍수지리 실천풍수의 음양택비결, 땅의 성정이 실로 지향하는 바가 정녕 무엇이며, 그 진실과 허상을 증명해 간다. 기초에서 완성까지 6개월

**禪의 길**  
조작되는 인간의 뇌파와 우주관, 과연 도도는 일도 속명인 것인가? 도의 구극적인 진성은 닦고 가공해서 만들어 내는 예술품이 아니다. 닦고 가공해서 만들어 내는 예술품이 아니다. 인식이 증명되는 과정의 지혜강의

수강신청 및 강의시간(포괄적 강의) 자격제한 없음  
매주 수 토 일 오후 2~5시

**강 의 장 소**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95-2 (광주대 상류 소재원 주차장 아래 하천변) 철학연구소원(진짜곰탕집)

TEL 061-383-7222 HP 010-4178-8830

**강사 柳無山居士**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 시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직항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원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알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9(2014-중-47)38호